

아시아나 균등 무상감자 주총통과 미지수

안건승인 가능성, 소액주주에 달려

3대1 비율로 균등 무상감자 추진
내달 14일 주주총회 상정 표결
주총 승인되더라도 법정공방 여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인 아시아나 항공이 결국 자구책의 일환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추진하면서, 금호석유화학 등 주주들의 반대가 잇따를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대 1의 비율로 균등 무상감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총주식 수는 2억 2323만 5294주에서 감자 후 7441만 1764주로 줄고, 자본금도 1조 1161억 7647만원에서 3720억 5882만원이 된다. 감자 기준일은 내달 28일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을 내달 14일 주주총회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다"라며 차등감자가 아닌 균등감자 추진 이유에 대해 "대주주 지분은 매각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고, 지난해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거래종결을 앞둔 M



&A가 코로나19로 무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균등 무상감자 추진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주주에게만 그간 경영의 책임을 묻는 차등감자와 달리, 균등감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대주주 금호산업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주식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후 금호산업은 당초 6868만 8063주에서 2289만 6021주로 줄어든다. 또, 금호석유화학은 2459만 3400주에서 819만 7800주가 되고, 기타주주의 경우 1억 2994만 3831주에서 4331만 4610주로 감소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 다투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구조는 ▲금호산업 30.77% ▲금호석유화학 11.02% ▲소액주주(1% 미만) 58.20% 등이다. 이에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균등감자 추진 안건이 승인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균등감자 추진안이 주총에서 승인되더라도, 향후 금호석유화학과 법정 공방을 다룰 여지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에서 균등감자를 의결하기 이전 산업은행에 이 같은 방식의 3대 1 무상감자를 반대한다는 뜻을 문서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올 뉴 렉스턴' 사전계약 3800대 돌파

쌍용차 노사 합심해 2년간 개발
외장·내부 디자인 신차급 탈바꿈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선진 노사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

쌍용차는 4일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올 뉴 렉스턴을 가수 임영웅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했다. 올 뉴 렉스턴은 'G4 렉스턴(사전계약 3500여대)'의 부분변경 모델임에도 사전계약 3800여대를 넘어설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이날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쇼케이스 행사는 동시 접속자가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신차 출시 쇼케이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쌍용차는 경영악화로 인해 개발비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올 뉴 렉스턴의 개발을 위해 노사가 손잡고 2년여간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했다.

그 결과 올 뉴 렉스턴은 전·후면 디자인을 모두 새롭게 바꿨다. 앞쪽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뒷쪽은 T자 형태의 발광다이오드(LED) 리어캡 등을 새로 추가했다. 세부



쌍용차 올 뉴 렉스턴 랜선쇼케이스X임영웅.

모델인 '더 블랙'에는 옆 문에 전용 장식품을 적용하고 20인치 블랙 다이아이어 휠도 탑재했다.

내장은 의자 시트와 문 쪽에 퀵팅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계기판)는 총 3가지 테마로 제공된다. 트렁크는 784L로 골프백을 가로로 4개까지 수납할 수 있다. 2열 좌석을 접으면 최대 1977L까지 확장된다.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적용했다.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로 기존 모델 대비 각각 15마력, 2.0kg·m 향상됐다. 쌍용차 모델 중 최초로 레버 타입의 전자식 변속 시스템(SBW)도 탑재했다.

올 뉴 렉스턴 가격은 ▲럭셔리 3695만원 ▲프레스티지 4175만원이다. 스페셜 모델인 '더 블랙'은 497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누워도 실내공간 충분... 차박 즐기기에 '딱'



쌍용차 '티볼리 에어'

부분변경 통해 넓은 실내 공간 확보
2열 좌석 접으면 적재공간 1440L

단종의 아픔을 겪었던 티볼리 에어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돌아왔다. 특히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통해 더욱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작정하고 차박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췄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티볼리 에어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과 심플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외관 디자인은 지난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티볼리와 공유한다.

티볼리 에어의 전장은 4480mm, 전폭 1810mm, 전고 1645mm다. 크기는 소형 SUV지만 적재공간은 720L로 준중형과 중형 SUV와 맞먹는 수준이다. 뒷좌석을 접으면 적재공간은 1440L로 늘어난다. 2열 좌석을 접고 차박을 가정해 누워보니 전폭과 전고 제한이 있어 다소 답답함은 있지만 차박을 하기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티볼리 에어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을 출발해 경기도 양평의 한 카페까지 왕복



쌍용차 티볼리 에어.

약 140km를 시승했다. 고속도로와 도심 구간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티볼리 에어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63마력, 최대토크 26.5kg·m로 주행중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특히 전장이 길어졌지만 회전 구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롤링 밸런스로 우수했다.

또 주행안전 보조시스템도 대거 적용됐다. 티볼리 에어는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달리도록 돕는 차선중앙유지보조(CLKA)를 지원한다. 후측방 충돌이 우려되면 제동하는 후측방 접근충돌방지보조(RCTAi), 하차 시 접근 물체를 알려주는 탑승객하차보조(EAF)도 제공된다. 동급에서 가장 많은 7개

에어백을 갖추고 있다.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성이다. 소형 SUV이지만 중형 SUV급 공간을 갖춘 티볼리 에어의 가격은 A1 트림이 1890만~1920만원, A3 트림이 2170만~2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묶은 '파플러 컬렉션 패키지'를 저렴하게 마련해 옵션 비용 부담도 줄였다. 또한 저공해 3종 혜택을 받아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최대 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볼리 에어의 공인 연비는 휠 크기(16~18인치형)에 따라 L당 11.8~12.0km다. 직접 주행한 차량의 연비(11.8km/L)는 13.9km/L로 공인 연비보다 우수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 3팀 창업 지원

올해에만 8개 스타트업 창업

삼성전자 사내 벤처 3개가 독립한다.

삼성전자는 C랩 인사이트 우수 과제 3개에 대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5개 팀에 이어 올해에만 8개 스타트업이 새로 만들어졌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문화 확산에 주목하고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과제를 지원 과제로 선택했다.

지원 과제는 ▲AI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탈모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컨'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홈 IoT 소변 검사 시스템 '엘로시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IoT 기기와



삼성전자 C랩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3개 과제 참여 임직원들. /삼성전자

플랫폼을 개발하는 '바이브존' 이다.

C랩 인사이트는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핀오프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독립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171명이 48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오브제컬렉션 온라인 광고 공개

컬렉션 통해 나만의 인테리어 강조

LG 오브제컬렉션이 15개 모습을 소개한다.

LG전자는 4일 오브제컬렉션 스토리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 15편을 브랜드 사이트에 공개했다.

영상은 오브제 컬렉션(OBJET COLLECTION) 알파벳 15개에 의미를 부여해 구별했다. 오브제(Objet), 밸런스(Balance), 조이플(Joyful), 엣지(Edge), 테크놀로지(Technology), 컬렉트(Collect), 오케이(Okay), 러브미(Love me), 레이아웃(Layout), 이모션(Emotion), 체인지(Change), 타임리스(Ti



오브제컬렉션 영상. /LG전자

meless), 아이디어(Idea), 온라인(Only one), 뉴라이프(New Life)다.

예를 들어 밸런스편은 아름다움의 기본, 테크놀로지편은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두고 소개한다. 컬렉트 편은 오브제컬렉션을 모아 나만의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